

教職의 女性化에 問題있다

金 容 淑

(서울教育大 教育學科)

問題 제기 및 論議 視角

카네기 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3년여 동안 실증적으로 미국의 교육을 분석하여 펴낸 「교실의 위기」에서 실버만(Charles E. Silberman)은 “미국의 공교육의 개혁에는 교원양성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자나 교사를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갈파한 바 있다.

실제로 새로운 교사가 새로운 교실에 들어가 새로운 교육을 할 때에 비로소 교육 개혁이 쉽게 이루어지고 교실의 위기적 현상이 해결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특히 교육의 質이 교사의 質을 능가할 수 없다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자원보다도 교사라고 하는 인적 자원에 많은 투자와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교원 양성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 제도는 성별에 따른 교사의 諸 역할을 조화시켜 교사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아동·학생의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측면에서의 당연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성별에 따른 입학 정원 할당제는 여성 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여권운동가 등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林善姬는 “敎大 정원 特別 제한은 평등 기본 이념에 위배된 처사”라고 규정하면서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개인의 잠재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을 위한 것이라면 학습자를 성별에 의해서 구별하여서는 안 되며, 성차이에 의한 성별 분화 교육은 개인의 능력 개발을 저해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 이데올로기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성별에 따른 입학 정원 할당제는 그것이 제기된 상황이나 교직의 여성화의 문제점과 교원 양성 기관 교육 자체의 문제점 등 보다 다각적·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만 보면 분명히 여성의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물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교직의 여성화에 따른 학교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왜 교원 양성 기관이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 제도라는 긴급한 대응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본질적으로 이 제도가 갖는 타당성이 무엇인가를 초·중등학교의 경영과 교육 그리고 교원 양성 대학의 교육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밝히고자 한다.

教職의 女性化 傾向

해방 이후 남녀 평등 사상이

점차 인식되고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사회 구조의 변동에 따른 가족 구조의 변화, 교육의 기회 균등의 실현, 여성의 교육 기회의 확대, 여성의 의식 구조의 변천 등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는 각 직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공업화가 급격히 진행된 '70년대 이후 더욱 여성의 사회 참여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단순한 노무직에서부터 고도의 정신 기능을 요구하는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교직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인 측면은 물론 생활의 안정이란 측면에서도 적합하고 다른 직종에 비하여 남녀간의 보수차가 없으며 결혼 후에도 근무할 수 있다는 점 등 여성의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인정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교직을 선호함에 따라 교직에 있어서의 여성의 점유 비율이 급상승해 왔다. 특히 초등 교직의 경우 <표 1>과 같이 타직종에 비해 놀라운 속도로 증가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86년 현재 국민학교 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은 69%, 부산 61%, 경기도 51% 등 반 이상이나 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도 여교사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되어 '86년도 현재 전교사의 39.4%가 여교사이며 서울의 경우는 50%, 부산 49.2%, 인천 45.2%, 경기도 47.4%로 거의 절반이 여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우리나라 국민학교 女教師 比率

연 도	전체교원수	여교사수	비율(%)
1960	61,058	9,783	16.0
1964	75,455	19,053	25.2
1971	103,756	32,709	31.5
1975	108,126	36,440	33.7
1978	115,245	41,040	35.6
1980	119,064	43,792	36.8
1981	122,727	47,230	38.5
1982	124,572	49,720	39.9
1986	126,677	55,361	43.7

그런데 이같이 교직의 여성화 현상이 남녀 평등의 실현과 여성 인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에서 환영되어야 하는데도 '86년도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3대 난제 중의 하나가 여교사의 증가 문제였다는 사실은 교직의 여성화가 교육에 미치는 심각성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86년 2월 3일자 새한신문 '서울교위 3대 난제 대책 부심' 참조). 그렇다면 교직의 여성화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청된다.

教職의 女性化에 따른 諸問題

아리스토텔레스는 불평등하게 태어난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처럼 불평등한 일은 없다고 갈파한 바 있거니와 남녀간에는 우리 사회와 문화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 어쩔 수 없는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도 여성답게 생활하고 교육해 오는 과정 때문에 남녀간의 능력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Mill이 연구 분석한 바와 같이 남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공격적이며 대담하고 행동이 다양하며, 여성은 등정심이 많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며 감정적이고 통제력이 약하다고 본다. 면 교직에 있어서 남교사와 여교사의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김문식이 실제로 연구한 '교직의 여성화 경향에 따른 문제 분석 연구—서울시 국민학교를 중심으로—에 의하면 학습지도 면에서 여교사는 교실에서 지도하는 교과 내용을 착실히 하고 있음에 비하여 과학 기재를 다루는 면이 부족하고 운동장에서의 수업이 남교사보다 부족하였다. 생활지도면에서는 여교사는 사제동행하는 면이 남교사보다 우수하나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는 면은 부족하였다. 학교 행사의 참여면에서 여교사는 남교사보다 부족한데, 이는 적극적으로 활동적인 면에서 남교사보다 못한 데에서 오는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김석현도 '교사의 여성

화 경향에 관한 연구'에서 여교사는 시설 관리 및 일·숙직 등 행정 관리에 곤란하고 학습지도면에서도 정서 교육, 무용, 음악, 가사 등의 지도는 용이하나 체육 및 실기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전체 학생의 통솔 지도가 어렵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면에서도 각종 행사 및 계몽운동 등 봉사 자세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남학생들의 성품이 여성화되어 치열한 국제 경쟁 사회에서 조국을 수호하며 이끌어 갈 썩색한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남녀 교사의 능력 면에서의 장단점과 그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한편 중앙교육연구원의 「여교사에 관한 조사 연구(1978년)」에 의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남녀 교사의 능력 차이로서 국민학교의 경우 남학생의 기질이 여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반응이 53.4%로서 전혀 영향이 없다(26%)보다 거의 배나 많았고 특히 남자 교사들은 최근 남학생 기질이 여성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교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

민학교에서 학생들이 여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도 남학생들이 여성화 내지는 중성화됨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더우기 권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대학의 재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계속 높아져 왔으며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제를 실시하기 이전인 '82년도에는 약 85%에 육박하였다(사범대학의 경우도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져 '86년에 전체의 여학생 비율이 56.7%나 되었다. 학과에 따라서는 80% 이상 점유하여 사범대학 교육 자체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이 교육대학 자체도 여자 교육대학화 함으로써 최소 가치로 대우를 받던 남학생조차 자신도 모르게 교육대학 교육을 받은 후에 여성화되어 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국민학교 남학생의 여성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특히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민학교에서의 남학생의 여성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는 능히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유치원에서는 여자 보모에 의해서, 국민학교에서는 여교사에 의해서, 중학교에서도 여교사에 의해서(현재 대도시의 중학교는 약 50%가 여교사로 되어 있으며 학교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함) 지도되고 있다면(현재 대도시에서는 유치원에서 중학교까지 여교사의 지도를 받아오고 있는 비율이 아주 높음) 아무리 환경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학자라 할지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겠으며 어떤 교육자라도 이를 방치할 수 있으며 학부모들도 방관만 할 수 있겠는가?

중학교의 경우도 교직의 여성화로 인해 생활 지도의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되고 있으며("지금 학교에서는...말투까지 여선생님을 닮아요" '87년 3월 11일자 중앙일보 5면 참조) 숙직 문제도 커다란 과제로 등장되고 있다(국교 못지 않은 여교사 비율 "중등도 '숙직전담' 배치 호소" '86년 4월 14일자 새한신문 참조).

따라서 교육이 근본적으로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동·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것도 아동·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도든지 남녀 교사를 적절한 비율로 교직에 배치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물론 교사의 능력은 性差보다는 個人差에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남녀 교사를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여교사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표 2〉 教育大學 在學生의 女學生 狀況

연 도	진 국 교 육 대 학			서 울 교 육 대 학		
	전 체	여 학생	구성비율 (%)	전 체	여 학생	구성비율 (%)
1965	52,920	2,491	42.1	581	314	54.0
1970	11,523	6,566	57.0	1,151	816	70.9
1975	8,255	4,908	59.5	845	507	60.0
1980	9,425	7,723	81.4	1,220	1,003	82.2
1981	10,324	8,665	83.9	1,358	1,147	84.5
1982	11,102	9,427	84.9	1,520	1,303	85.7
1986	21,106	13,646	64.4	3,213	2,348	73

고 주장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性差에 의한 능력 차이는 극복하기 어렵을 뿐더러 일부 기혼 여교사들은 부인, 어머니, 며느리 등의 역할과 교직을 어떻게 조화하여 성공적으로 교직을 수행하느냐는 문제조차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학교장들도 이를 경영상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교직의 여성화에 따른 문제점은 이같이 초·중등 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원 양성 기관에서의 교육 자체가 여성화함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中山茂는 女大生 亡國論에서 여교사가 정원되는 이유와 사범계 대학에 여성이 쇄도함에 따른 문제점을 논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있음).

결국 교직의 女性化에 따른 문제점으로 남학생의 女性化, 체육 등의 학습 지도와 생활 지도상의 비능률, 학교 행사, 지역 사회 활동, 숙직 등에 부적격으로 인한 남교사의 근무 부담 가중과 이로 인한 학교 경영상의 애로(교원 양성 대학 포함) 등 교육의 근본적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된 교직의 여성화에 따른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거의 남녀 교사간의 능력 차이를 인정함과 동시에 5:5 정도로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초등 교직의 여성화에

다른 문제점과 자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 교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6개 교대가 성별에 따른 입학 정원 할당제를 채택하였으며 '87년도의 입학에서 성별 비율을 60:40으로 하여 남학생의 비율을 이전보다 5%에서 크게는 15%까지 높였던 것이다.

한편 사범대학의 경우도 일부 대학에서 성별에 따른 정원제를 채택 실시하고 있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를 확산하려 하고 있는 바 교직의 여성화에 따른 문제점이 중학교의 경우도 심각하다는 데에서 오는 당연한 대응책인 것이다.

性別에 따른 定員 할당제의 타당성

앞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교직의 여성화에 따른 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아가 교원 양성 대학 자체의 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제는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대응 방법이라고(심지어는 무사안일적인) 비판을 받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교원의 처우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남교사를 대폭 유치한다는 것도 사실상 곤란하며 그렇다고 더이상 교직의 여성화를 방치해 둔다면 교직의 완전 여성화로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제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많은 타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는 확대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

가 갖는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全人教育을 가능케 하며 피교육자의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연구된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남녀의 性差에 따른 교사의 능력과 역할이 다름에 따라 피교육자의 균형 있고 조화 있는 전인 교육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교직의 여성화'나 '남성화'는 피교육자의 전인교육을 저해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71년에 김운태 외 4명이 연구한 대한교육연합회의 정책연구는 교직의 여성화 경향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여기에서는 교원들이 바라는 여교사의 비율은 국민학교에서는 그 절반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남자 중학교는 30% 정도, 여자 중학교는 반수 정도를 가장 좋다고 보았고 남자 고등학교는 10%, 여자 고등학교는 남녀 반반 정도가 알맞다고 파악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각급학교의 여교사의 비율을 당시의 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교육자의 교육 기회 균등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교원 양성 기관의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아닐까?

둘째, 기존 교사들의 가중된 부담을 줄이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여교사의 증가는 남교사의 근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한 남

교사가 해야 할 일을 여교사가 담당함으로써 여교사의 근무 부담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남교사가 줄어들고 여교사가 많아짐에 따라 남교사가 주로 하는 학교 행사나 숙직 등의 부담이 많아지고 여교사는 남교사가 줄어들어서 남교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차가 근무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여교사 자신들도 교직의 여성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세째, 성별에 따른 입학 정원 할당제는 교원 양성 기관 자체를 활성화시킨다.

교원 양성 기관의 여성화는 교원 교육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녀 구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비슷하지 못하고 여성이 너무 많을 때 학생회를 비롯하여 학교 분위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학생이 여성화되거나 중성화되어 졸업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의 경우도 성별에 따른 입학 정원 할당제를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제는 오히려 입학 성적에 있어서 심한 격차를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교원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겠느냐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지만 전학년도의 남녀 학생의 입학 성적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남녀 비율을 조절해 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력고사의 성적과 입학 후의 학업 성적과는 상관 관계가 별로 없으며 실제

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째,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제는 여교사, 학교 행정 당국, 학부모의 요망을 실현하고 있다.

김병렬 외 2인에 의하여 연구된 '국민학교 교직의 여성화 경향에 따른 제문제'(국민학교 1,600명, 학교 행정가, 교육전문가 500명, 학부모 721명 대상)에 의하면 교육대학 입학 정원의 남녀별 비율 조정책에 대해서 교사 및 학부모를 포함 학교 행정가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비율은 5:5 선이 중심으로 되어야 하며 이를 무엇보다도 교육적·행정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초등 교원의 여성화 추세에 대해서 학교 행정가와 교육전문가, 남교사의 절대 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여교사의 반 수 이상이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한편 교육대학의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의 다수가 교육대학의 성별 정원 할당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음을 필자는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교육대학은 물론 사범대학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제는 형식적이고 원칙적인 성별 차별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교육에 관계된 모든 국민이 원하는(여권운동을 위한 운동가의 경우는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제도라는 점

에서 사회적 기반에 근거를 두므로 타당성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끝맺으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시각이나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피교육자의 교육 기회 균등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초·중등학교의 교육 및 경영적 측면은 물론 교사·아동·학부형 등의 입장과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적 측면 등 다각적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같이 종합적 관점에서 볼 때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제는 여성 차별 이전에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인사들의 요망에 부응할 소위 사회적 기반위에 설립된 제도이며 이는 남녀 교사들의 근무 부담도 줄이며 초·중등학교의 경영은 물론 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피교육자의 전인적 발달을 꾀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더우기 성별에 따른 정원 할당제 수립의 근본적 배경이 교직의 여성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극소화시키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여교사 스스로의 의식 개화와 능력 개발이 시급하며 오히려 여성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반대보다는 이를 환영해야 할 성질의 것이 분명하다. *